

## 정답 및 해설

### • 국어 공통 영역 •

#### 정답

1	⑤	2	①	3	③	4	③	5	④
6	④	7	②	8	②	9	①	10	③
11	⑤	12	④	13	②	14	①	15	②
16	④	17	②	18	②	19	④	20	①
21	⑤	22	⑤	23	③	24	④	25	①
26	③	27	②	28	①	29	③	30	①
31	③	32	④	33	⑤	34	②		

#### 해설

#### [1-3] 독서

##### 1.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⑤ ㉠을 위한 과정으로 목차나 책 전체를 훑어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 내용을 선별하는 것과 표면에 드러난 내용의 정확한 읽기, 어떤 내용의 추론 및 비판,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종합하는 등의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서적 반응을 기준으로 글의 가치를 평가하며 읽는다는 방법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지문 1문단에서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읽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② 지문 1문단에서 목차나 책 전체를 훑어보아 읽을 내용을 선별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③ 지문 1문단에서 글 어떤 내용의 내용을 추론하고 비판하며 읽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④ 지문 1문단에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 중점적으로 읽을 내용을 선별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 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사체에 적용한다.

① <보기>에서 연속적인 공부의 맥이 끊어지면 정신이 새어나가고 성의가 흩어져 버리니 학문의 깊은 뜻을 꿰뚫어 볼 수 없다고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해당 부분은 공부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이지, 기록의 궁극적 목적이 땅각의 방지라고 보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② <보기>에서 이익은 학문의 깊은 뜻을 꿰뚫어보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벗과 강론하고, 의문이 드는 부분을 뽑아 기록하여 벗에게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강론 또는 기록을 권유했던 전통과도 맥을 같이한다는 지문의 맥락을 고려할 때 이는 주제를 깊이 탐구하고자 하는 태도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보기>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강론하는 것은 벗끼리 모여 학문을 강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문에서 독서의 의미 구성이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통적으로 의견을 주고 받으며 토론하는 강론과 맥을 같이한다고 제시된 맥락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④ 지문에서 독서의 의미 구성이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의견을 주고 받으며 토론하는 강론, 내지는 기록을 권유했던 전통과 맥을 같이한다고 제시된 맥락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⑤ <보기>에서 의문이 드는 부분을 뽑아 기록해서 벗에게 보내 사제해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얼굴을 마주하는 강론에서 마음속의 생각을 다 드러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토론하는 강론의 보충이라는 점에서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 기능할 수 있는 기록의 의미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3. [출제의도] 반응에 대한 이해를 평가한다.

③ 학생은 이전에 학교에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책을 읽고 친구들과 의논한 경험을 되살리면서 지문에 제시된 독서 활동의 모습이 낯설지 않음을 발견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학습 경험과 결부하여 지문에 제시된 독서 활동의 의미를 확인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해당 학생의 반응에서 앞으로 깨달은 바를

실천하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② 과거의 학습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반응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과거의 학습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있으나, 추가적인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다. ⑤ 학습 경험을 기억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있으나, 지속적인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 [4-9] 인문-인과관계

##### 4. [출제의도] 글의 전개 방식을 비교하며 파악한다.

③ (가) 지문 4문단에서 사회 규범을 어긴 것과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사이의 인과 관계를 예시로 들면서 세면의 과정이론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가) 지문 1문단에서 인과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문이 철학자들 사이에 제기되어 이에 따라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는 시도로 세면의 과정 이론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② 인과 관계에 대한 동아시아의 대표적 논의인 재이론을 소개하면서 천견설과 천인감응론을 결합하여 재이론을 체계화하였다는 사실과 재이론이 군주의 실정과 재이의 연관 관계에 대한 것이었음이 (나) 지문 1문단에서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④ (나) 지문 2문단에서 동중서 이후, 3문단에서 송대에 이르러 변화한 재이론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⑤ (가)에서는 세면의 과정 이론에서 드러나는 서양의 관점을, (나)에서는 재이론에서 드러나는 인과 관계에 대한 관점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 5.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④ (나) 지문 1문단에 따르면 현대의 동중서는 인간과 하늘이 공통된 음양의 기를 통해 서로 감응한다는 천인감응론을 결합하여 재이론을 체계화 한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가) 지문 4문단에 따르면 과정 이론은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을 해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② (가) 지문 2문단에 따르면 표지는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고, 세면의 과정이론은 이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인과적 과정이라고 본다. 현대 (가) 지문 4문단에 따르면 사회 규범을 어긴 것과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지만 과정 이론이 이를 다루지 못한다고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③ 지문 1문단에 따르면 근대 이후, 인과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문이 철학자들 사이에 제기되었고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⑤ (나) 지문 3문단에 따르면 송대에 이르러 주희는 예측 가능하게 된 일월성을 재이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을 수용하였다고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 6. [출제의도] 제시된 구체적 상황을 해석한다.

④ (가) 지문 3문단에 따르면 바나나를 한 입 떼어내는 과정은 과정 2로, 과정 1과 2의 교차에 따라 이 표지가 b까지 전달되고 과정 3에서 과정 1과 2의 교차 이후에 그림자 역시 변하였으므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가) 지문 2문단에 따르면 과정은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고, 3문단에서 바나나의 이동은 과정 1, 그림자의 이동은 과정 3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시공간적 궤적을 그린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② (가) 지문 2문단에 따르면 표지는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고, 3문단에 따르면 과정 1과 2가 교차한 뒤 표지가 도입되었다고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③ (가) 지문 2문단에 따르면 인과적 과정은 표지가 도입되면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다. 현대 3문단에 따르면 과정 1과 2가 교차한 표지를 b까지 전달할 수 있는 과정 1과 달리 과정 3은 일그러짐이라는 표지가 도입되어도 스티로폼이 부착된 지점을 지났을 때 일그러짐이라는 표지를 유지하지 못하고 원래대로 돌아오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⑤ (가) 지문 3문단에 따르면 그림자가 a에서 b로 이동하는 과정 3과 스티로폼이 부착되는 과정 4가 교차된 후에 그 지점을 지나가면 과정 3에 도입된 일그러짐이라는 표지는 그림자대로 돌아오면서 전달되지 못하고, 스티로폼도 그대로 입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 7.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② (나) 지문 2문단에 따르면 개별적 대응 방식은 동중서 이후 예언화 경향으로 이어져 군주의 실정이 재이로 이어진다는 동중서에 의해 체계화된 재이론과 달리 재이를 인간사의 정조로, 인간사를 재이의 결과로 대응시키는 풍조를 낳기도 하였다고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 지문 2문단에 따르면 동중서 이후 개별적 대응 방식이 예언화 경향으로 이어지면서 요망한 말로 백성을 미혹시켰다는 이유로 군주가 직언을 하는 신하를 탄압하는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고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③ (나) 지문 3문단에 따르면 주희는 재이를 이치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자연 현상으로 간주하면서도 재이론이 제기되는 것은 신하의 입장에서 유용한 정치적 기계를 잃는 것이므로 ㉠ 전반적 대응설을 제시하였음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④ (나) 지문 3문단에 따르면 ㉡ 전반적 대응설은 신하 입장에서 유용한 정치적 기계를 재이론을 유지하기 위해 제시된 것으로 재이에 대한 개별적 대응 대신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하늘이 감응하여 변칙적인 자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⑤ (나) 지문 3문단에 따르면 ㉢ 전반적 대응설은 군주를 경계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재이론을 고수한 주희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군주의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하늘이 이에 감응하여 변칙적인 자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이론이므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 8.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② (나) 지문에 제시된 동중서의 재이론은 물리적 성질의 주고 받음이 아니라 인간과 하늘에 공통된 음양의 기를 매개로 한 감응이 군주의 실정과 재이의 인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 지문 1문단에서 제시된 인과 관계 그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문제와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해 이해하려는 시도로 세면의 과정 이론이 지문 2문단에서 인과적 과정의 그대로 물리적 속성 변화의 전달을 제시하고 있는 맥락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③ (나) 지문 1문단에서 동중서는 자신이 체계화한 재이론에서 재이는 군주의 실정에 대한 경고라고 보고 있고, 지문 3문단에서 주희는 군주를 경계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재이론을 고수하면서 군주의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변칙적인 자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반적 대응설을 통해 재이를 군주의 심성 수양 문제로 귀결시키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④ (가) 지문 4문단에서 세면의 과정 이론의 한계로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을 해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⑤ (가) 지문 2문단에서 세면의 인과적 과정의 조건으로 표지의 도입 이후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 9.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① 지문 해당 맥락과 선지 모두에서 '찾다'는 "(사람이 문제의 해결책이나 방안을) 알아내려고 모색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그 의미가 가장 가깝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선지 해당 맥락에서 '찾다'는 "모르는 것을 알아내기 위하여 책 따위를 뒤지거나 컴퓨터를 검색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문맥상 의미에 다소 차이가 있다. ③ 선지 해당 맥락에서 '찾다'는 "어떤 것을 구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문맥상 의미에 다소 차이가

있다. ④ 선지 해당 맥락에서 ‘찾다’는 “원상태를 회복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문맥상 의미에 다소 차이가 있다. ⑤ 선지 해당 맥락에서 ‘찾다’는 “원상태를 회복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문맥상 의미에 다소 차이가 있다.

**[10-13] 독서(사회) 형벌과 형벌 제도 운용에 대한 베카리아의 관점과 의의**

**10. [출제 의도] 중심 인물의 관점을 파악한다.**

③ 1문단에 따르면 개개인의 국민이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할 뿐, 그 주권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권자는 별개로 존재한다. 따라서 개개인의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Paraphrasing, 지속 = 유지] 1문단에 따르면, 법은 사회의 지속을 위한 조건이다. 따라서 공동체를 이루는 합의가 유지되는 데는 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② [축약, 문장 결합] 1문단에 따르면, 베카리아의 관점은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호응한다. 베카리아는 인간을,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 전체하기에 베카리아는 사람을 이성적이고 타산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3문단을 통해 베카리아는 사람을 감각적인 존재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3문단에 따르면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이 계속 시행되다 보면 사회 일반은 그에 마침내 무디어진다 보고 있다. 또한 무수무시한 경험은 일시적이라고 주장한다. ⑤ 1문단에 따르면, 베카리아는 법과 형벌에 대한 자신의 논증을 바탕으로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출발점을 세웠다. 여기서 양도의 대상은 사람들이 때이 준 자유이기에, 형벌권 행사의 범위가 그 자유의 총합을 넘을 수 없다는 베카리아의 관점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11. [출제 의도] 세부 정보를 바탕으로 밑줄 친 소재의 함축적 의미, 나아가 정보와 기능을 파악한다.**

⑤ ㉠이 말하는 울타리란,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인 ‘형벌’을 말한다. 형벌의 목적은 공익이 입게 되는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달성되기에, 높게 설정할수록 형벌이 주는 방어 효과가 증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베카리아는 오히려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한 정도를 넘어서는 처벌은 불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변용, 또다시 피해를 끼치기 = 재범] 2문단에 따르면 형벌은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② [변용, 명확히 = 뚜렷이] 2문단에서, 베카리아는 처벌 체계가 명확히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 집행의 확실성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③ [양적 관계, [변용, 훼손 = 손실] 2문단에서 베카리아는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하여 형벌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④ [인과] 2문단에서 ‘처벌 체계’ 즉 형벌의 규정과 확실성은 누구나 손익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형벌은 다른 사람들이 범죄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2. [출제 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한다.**

**[집합이]** 3문단의 ‘이처럼’ 앞에 있는 베카리아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어서 베카리아의 입장과 ‘휴머니스트’, ‘공리주의자’, ‘사회 계약론자’ 등의 내용을 연결하여 오답과 정답을 구분해야 한다.

④ 베카리아는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자유를 내어주는 합의에서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베카리아의 입장을 사회 계약론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큰 가치를 내어주는 합의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형을 비판할 것이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서 베카리아는 법은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준수되며 전체 복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형벌이라고 말한다. 공리주의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하긴 하지만, 형벌이 사회적 행복 증진을 저해한다고 보지는 않음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베카리아는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가장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 말하며 잔혹한 형벌보다는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속죄하는 고통의 모습을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 더 강력한 범죄 억제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형이 범죄 예방의 효과가 없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희생한 자유에는 가

장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을뿐더러 예방의 효과가 적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③ 베카리아는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가장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고 말한다.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볼 때, 값진 생명이 희생한 자유에 포함될 수 없기에 사형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사회의 기에에 영구히 각인되는 형벌이어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베카리아는 죽는 장면의 목적은 일시적이라 언급하기에 사형을 영구히 각인되는 잔혹한 형벌이라 보는 것은 베카리아의 입장과 상충된다. ⑤ 베카리아는 형벌의 강도가 아닌 지속을 강조한다. 따라서 사형을 무기 징역으로 대체하는 데 있어 찬성할 것이다.

**13. [출제 의도] 어휘의 의미를 파악한다.**

② ‘가로막다’는 ‘어떤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막다.’ 혹은 ‘앞이 보이지 않도록 가리다.’의 뜻을 지닌 단어이다. 반면 ‘단절하다’는 ‘유대나 연관 관계를 끊다.’의 뜻을 지닌 단어이다. 따라서 ⑥의 ‘가로막는’을 ‘단절하는’으로 바꿔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항유하다’는 ‘누리어 가지다.’의 뜻을 지닌 단어이다. 따라서 ④의 ‘누리기로’와 ‘항유하기로’는 바꿔 쓸 수 있는 동의어이다. ③ ‘둔감하다’는 ‘감정이나 감각이 무디다.’의 뜻을 지닌 단어이다. 따라서 ⑤의 ‘둔감하다’를 ‘무디어져’와 ‘둔감해져’는 바꿔 쓸 수 동의어이다. ④ ‘지대하다’는 ‘더할 수 없이 크다.’의 뜻을 지닌 단어이다. 따라서 ②의 ‘크나큰’과 ‘지대하다’는 바꿔 쓸 수 있는 동의어이다. ⑤ ‘수렴하다’는 ‘국가나 정부, 제도, 계획 따위를 이룩하여 세우다.’의 뜻을 지닌 단어이다. 따라서 ①의 ‘세웠다는’과 ‘수렴하였다는’은 바꿔 쓸 수 있는 동의어이다.

**[14-17] 독서 PCR (연계 지문: 수능 특강 독서 174쪽)**

**14. [출제 의도] 글의 내용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①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이다. 표적 DNA는 주형 DNA의 일부분이므로 프라이머의 염기 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 서열이 주형 DNA에 존재한다.

**[오답 풀이]** ②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은 2배씩 증가하므로 표적 DNA 양이 처음의 2배가 되는 시간과 4배에서 8 배가 되는 시간은 한 사이클로 같다. ③ 전통적인 PCR은 PCR의 최종 산물을 형광 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하므로 표적 DNA 농도를 아는 표준 시료가 있더라도 미지 시료의 표적 DNA 농도를 PCR 과정 중에 알 수 없다. ④ 실시간 PCR은 전통적인 PCR과 동일하게 PCR을 실시하는데, PCR 과정은 우선 열을 가해 이중 가닥의 DNA를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⑤ 실시간 PCR은 전통적인 PCR과 동일하게 PCR을 실시하는데, PCR은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 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

**15. [출제 의도] 내용 간의 의미 관계를 파악한다.**

② 단일 가닥 표적 DNA와의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되어 비로소 형광 물질이 발색되는 ㉠과 달리, ㉡은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 물질이다.

**[오답 풀이]** ① ㉠이 프라이머와 결합해 이합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프라이머끼리 결합한 이합체와 결합하여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③ ㉡은 그 자체로 형광 물질이며, 이중 가닥 표적 DNA와 결합한다. ㉠은 형광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형광 물질이 아닌 단일 가닥 표적 DNA와 결합한다. ④ ㉡은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므로 한 사이클의 끝 시점에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은 PCR 과정 초기에 이중 가닥 DNA가 단일 가닥으로 되면, 표적 DNA에 결합한다. 이후 탐침이 표적 DNA와의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되는 과정에서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⑤ ㉡은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지만, ㉠은 단일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한다.

**16. [출제 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추론한다.**

④ 실시간 PCR은 전통적인 PCR과 동일하게 PCR을 실시한다. PCR은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 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가닥 DNA로,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프라이머를 활용해 진단 검사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PCR은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

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다. 따라서 시료에 바이러스의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도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② 전통적인 PCR은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 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하므로, 발색 물질이 필요하다. ③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DNA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PCR은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초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전통적인 PCR은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 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하므로 진단에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⑤ 표적 DNA의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사이클을 수행한 후 PCR이 종료된다. 실시간 PCR에서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가 존재하는데, 이 발색도에 도달하자마자 PCR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감염 여부는 PCR 과정이 끝난 후가 아닌 PCR 과정 중에 알 수 있다.

**17. [출제 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한다.**

② 한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은 2배씩 증가한다. 만약 ㉠이 ㉡보다 표적 DNA의 초기 농도가 높다면, 초기에 표적 DNA가 많은 시료들의 Ct값보다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의 증가량은 ㉠이 ㉡보다 많다.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을 Ct값이라 한다. 따라서 동일한 표적 DNA를 포함하는 시료들의 Ct값에서의 발색도는 표적 DNA의 초기 농도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다. 그러므로 초기에 많은 표적 DNA를 포함하고 있던 ㉡는 동일한 발색도에 도달하기 위한 사이클의 수가 ㉡보다 적을 것이므로 실시간 PCR의 Ct값은 ㉠이 ㉡보다 작다.

**[18-21] 문학(현대소설) 홍성원, ‘무사와 악사’ (연계 지문: 수능 특강 181쪽)**

**18. [출제 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확인한다.**

② [A]에서 이야기 속 내부 서술자인 ‘나’는 ‘기범’이라는 인물에 대해 ‘그는 어쩌면 이 세상을 역순과 역행에 의해 누구보다 열심히 가장 솔직하게 살다 간 것 같다.~그는 악과 선 중 아무것도 믿지 않았고 오직 믿은 것이라고는 세상에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는 사실뿐이었다.’라고 말하며, ‘역순과 역행’, ‘악과 선’ 등의 어휘를 사용하여 ‘기범’에 대해 관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 이야기의 내부 서술자인 ‘나’는 ‘기범’이라는 인물의 과거 요설들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며 주관적으로 드러내고 있을 뿐, ‘기범’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지 않다. (내가 분명히 문학 총론에서 ‘객관성’은 100% 객관적이야 한다고 말했었다. 임철우의 ‘눈이 오면’ 관련 문제를 참고하길 바란다.) ③ [A]에서 ‘기범’이라는 인물과 관련하여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인 ‘나’가 등장하고 있을 뿐,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는 등장하지 않는다. ④ [A]에서는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인 ‘나’가 ‘기범’과 관련된 과거의 일을 생각하며 인물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제시하고 있을 뿐,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등장한다거나 회상으로 인해 사건의 전체를 지연시키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A]에서는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의 ‘나’가 ‘기범’과 관련해 자신의 주관적 생각을 드러내고 있을 뿐,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기범’의 내면을 묘사한다거나 인물 간 갈등이 지속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19. [출제 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④ ‘나’는 ‘기범’이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바위 살개 된 이야기를 듣고, 과거 ‘오일규’의 장례식에서 ‘기범’이 격렬하게 지껄인 요설들을 생각한다. 그리고 결국 ‘기범’이 사라져 버렸지만 ‘오일규’의 장례식 때 세상을 등질 결심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에는 나의 추측을 전제로 한 ‘기범’의 행동 결과만 드러나 있을 뿐, ‘기범’이 ‘나’와의 약속을 실행에 옮겼거나, 그에 대한 놀라움을 나타내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일규’의 장례식에서 ‘기범’이 미친 듯이 웃던 와중 “그래, 네 말이 맞다.~너희가 그놈을 사랑한 줄 아나?”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린다. 이 모습을 본 ‘나’는 갑작스러운 ‘기범’의 감정 변화에 긴장감을 느낀 것이다. ② 집까지 ‘기범’이 깊은 산골을 찾아와 기거하자 ‘임 씨’는 처음에 ‘뭔가 세상에 죄를 짓고 숨어있는’은 사람을 아니지 의심했다. 더욱이 이런 미심쩍은 상황에서 머리를 쥐고 수염까지 기른 ‘기범’의 외모는 그의 신원을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③ '기쁨'은 세상이 어지럽고 더러울 때는 '세상을 좀 더 깨끗하게 해서 더 이상 그 세상에 썩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기쁨'의 주장에 대해 '임 씨'는 '세상을 보는 이상한 눈'이라고 말하며 상식적이지 않은 관점에 수긍하지 못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⑤ '기쁨'은 앞으로 자신도 '미련하게 살 밖에 없노라'고 말했지만, '임 씨'는 이 '미련한 일'을 '착한 일'이라고 유추하며 말의 표면적 뜻과 달리 숨은 뜻을 파악하여 '기쁨'에 대해 우호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20.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물의 상황을 파악한다.**

① '나'는 '임 씨'를 통해 '기쁨'이 가지고 있던, 남들과 다른 ⑥(묘한 철학)를 듣게 되는데, 그것은 '세상이 어지럽고 더러울 때는 그것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기쁨'은 세상을 좀 더 깨끗하게 해서 더 이상 그 세상에 썩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야 하며, 세상이 철저히 깨끗이 더 썩을 것이 없게 되면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자구책을 쓴다고 여겼다. 이것을 '기쁨'은 '부정의 미학'이라고 불렀으며, '나'는 이를 통해 '가슴 한구석에 뭔가 미미하게 부딪쳐 오는 진동을 느끼며 '그것이 기쁨을 이해하는 어떤 열쇠'라 될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②(묘한 철학)는 '기쁨'에 대한 '나'의 인식이 전환 되는 데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②(묘한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나'는 '기쁨'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사상을 알게 된다. '기쁨'에 대해 '저'가 오해를 하고 있는 모습은 뒷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나'는 과거 '기쁨'의 ⑥(요설들)을 통해 그의 사상과 생각을 다시 들으며 생각하고 있다. '저'는 '그분의 과거'를 모른다고 하였다. 따라서 '저'는 '기쁨'이 지녔던 과거의 ⑥(요설들)을 알 수 없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④ '저'는 ②(묘한 철학)를 통해 '기쁨'이 가진 사상에 특이함을 느끼기는 하지만, '저'가 '기쁨'을 오해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저'가 '기쁨'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는 긍정적인 태도이고, 생명의 은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이함을 느끼는 것과 오해는 그 범주가 다른 것이다. ⑤ '저'는 '기쁨'이 깊은 산골로 들어와 대부분 남을 위해 살았던 사실을 소개하고 있을 뿐, '기쁨'이 선행을 베풀며 보인 변화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21. [출제의도] <보기>를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⑤ <보기>에서 '사람들은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 가며 그와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그가 부채한 상황에서는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라고 하였다. 일규의 정세상황에서 기쁨이 일규의 이름을 '임에 올린 자격이 없다'고 한 것은 동일시 대상인 일규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일규의 부채로 인해 기쁨이 겪는 마음의 상처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상대'로부터 외면받거나 그가 부채한 상황에서는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라고 하였다. 기쁨이 일규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세상 살 재미가 없어졌다'로 느끼는 것은 동일시하려던 '일규'의 부채로 인해 나타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② <보기>에서 상대가 외면받거나 부채한 상황일 때, '동일시의 상대를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한다.'라고 했다. 일규가 기쁨을 '말길로 걸어갔던 것을 기쁨이 외면받은 것으로 본다면, 기쁨은 이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일 뿐이라며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보기>에서 '사람들은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 가며 그와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를 통해 심리적 위안이나 성취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했다. '기쁨'이 '울적할 때마다' '일규'를 떠올리며 삶의 '재미와 기쁨'을 얻는 것이 '기쁨'의 모습에서, '기쁨'은 '일규'를 통해 심리적 위안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보기>에서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상대'로부터 외면받거나 그가 부채한 상황에서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그 상황에서 야예 벗어나고자 한다.'라고 했다. '기쁨'이 '일규'의 죽음 이후 '깊은 산골'에 기거하게 된 것은 동일시하려던 '일규'가 사라져버려 야예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기쁨'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22~27] 문학(갈래 복합, 고전시가+수필) 김시습, '유객'(비연계)/김경숙, '울리유곡'(연계 지문 : 수능특강 225쪽)/김용준, '조아삼매'(비연계)

<고전시가는 어느 정도 주제가 한정적이다. 특히 자연과 속세의 대비는 단골이며, 명사 단어를 잘 모를 지라도, 서술어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가령, 문서를 진의미를 모르더라도, 어지럽고 시끄러우며, 다 주어 내던져야 할 문사이므로 속세의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 정도 해석이 어렵다면 EBS(OVS)를 미리 공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22.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⑤ (가)에서는 '봄 산'을 통해 계절을 드러내며 봄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 또한 (나)에서는 '추풍'을 통해 계절을 드러내며 자연의 여유로운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 모두 자연 속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을 뿐 교훈적 의미를 전달하지는 않았다. 단지 속세를 거부하고 은거하는 (가)에서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특별한 교훈(가르침) 등을 찾을 어렵다. (나)의 17곡은 단지 전원에서 공동체적 삶에 만족하는 모습이지만 이것을 '교훈적 의미를 전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산이 만고에 푸르듯, 너도 변함없이 공부해라.'라고 한다면 교훈적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지. 하지만 해당 선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 ② (나)에서는 '수출전원이야 그와 내가 다르랴, '무슨 시름 있랴' 등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자연 속에서의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가)에서는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③ (가)와 (나) 모두 화자의 심리 변화를 확인할 수 없으며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 이동도 명확하지 않다. ④ (가)에서는 화자가 자신을 '청행사의 나그네'로 객관화했으나 내적 갈등에 대한 공감을 유도한 것은 아니다. (나)의 언명은 화자 자신이 찾았다. 내적 공감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적 태도와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23. [출제의도] 작품에 제시된 화자의 정서를 적절하게 파악한다.**

③ 화자는 속세를 떠나 자연으로 돌아온 자신의 상황이 '매인 새 놓'인 것보다도 더욱 '시원하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 것은 적절하지만 자연물에 대한 연민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정서 혹은 태도 면에서 크게 어긋나 있는 선지는 적절하지 않은 것의 정답이다.**

**[오답 풀이]** ① 화자는 '발마음'이라는 지명에 주목하여 자신과 '도연명'을 동일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아마 이 선지를 답으로 쓴 사람들은 EBS 학습이 될 되지 않았나 싶다. ② 화자는 자신이 있는 '강산'이 '삼공'과도 바꿀 수 없고, '만호후'도 부럽지 않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화자가 즐기는 '청풍'을 강조하고 있다. ④ 가지를 꺾고, 고기를 꿰어 들고, 낚은 다리를 건너가는 등 다양한 행위를 연속적으로 나열하여 화자의 생활의 일면을 제시하고 있다. ⑤ '죄 행수', '조 동갑'과 같이 청자를 호명하며 시름없는 즐거움을 함께하려 하고 있다.

**24. [출제의도] 작품에 제시된 글쓴이의 의도를 적절하게 파악한다.**

④ 글쓴이는 '서재'에 박혀 있으면 '속에서 울화가 터져 나온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 준 방법이라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궁궐을 먼할 양으로 본의 아닌 생활'을 하는 것과 '모든 속사(俗事)를 버리고 표현적 강상(江上)의 어객(漁客)이 되는 것'을 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기를 낚는 취미'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② '한 걸 쟁'과 '나를 '객'과 '주인'의 관계로 설정하여 낚시에 몰입하고 있다. ③ '한 걸 쟁'이 흔들리는 순간을 묘사함으로써 모든 정열을 '한 걸 쟁'에 기울이고 있던 글쓴이의 기대감과 '고기'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순간을 부각하고 있다. ⑤ 혼탁한 세상을 뒤로 하고 '심산벽촌에 은거'하던 사람들을 육한 적도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동강'한다며 글쓴이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25.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① (나)의 화자는 자신이 '도연명'과 같은 '발마음'에 거하며 '그와 내가 다르랴'라며 '도연명'과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며 자신의 '도연명'의 행적을 따르고자 함을 드러내고 있다. (다)의 화자는 '관교'가 관직을 버리고 자유로운 심

경에서 여생을 보냈으며 자신도 '남대'를 만들어 낚시를 취미로 삼고자 한다.

**[오답 풀이]** ② (나)의 '삼공'은 최고위 대신 직위를 나타내는 말로 세속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이들을 가리키고 있다. 하지만 (다)의 '성격 파산자'는 '공연스레 왔다갔다'하며 부질없는 행동을 하는 이를 가리키는 말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긴 어렵다. 해당 선지를 쓴 분들은 자의적인 해석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③ (나)의 '세버를 가지'와 (다)의 '청수(淸澗)한 한 폭 대'는 모두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낚시를 하기 위한 도구로 동일시하고 있는 대상으로 보긴 어렵다. ④ (나)의 '고기'는 낚시로 잡은 고기로 화자의 유희적한 모습을 나타내고 (다)의 '송사리'는 큰고기를 잡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⑤ (나)의 '시름'은 세속적 욕망과 관련된 소재이지만 '무슨 시름 있랴'라며 화자는 시름이 없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다)의 '육'은 어지러운 세상에 은거했던 이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였을 때의 글쓴이의 태도를 보여준다.

**26.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문학에서 세부 정보 적절 발문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위주로 접근하도록 한다.>

③ [A]에서 글쓴이는 남대를 끌어 올리며 큰 물고기라 올라오기를 바랐지만, '큰 고기는커녕 어떤 때는 방개란 놈이 달려 나오고, 어떤 때는 개구리란 놈이 발버둥을 치는 수가 많다.'라며 대어를 낚지 못한 것에 실망감을 드러낸다. [B]에서 글쓴이는 '미끈한 잉어까지야 못 물린 다손 치더'라고 '붕어 새끼'라고 남대를 물기를 바라지만, '얼토당토않은 구역질 나는 놈들이 남대에 걸려 올라오는 것에 체면이 손상되어 '가다듬은 내 마음을 더럽힐 줄 어찌 알았으랴'라며 탄탄한다. 따라서 [A]에서 나타난 글쓴이의 실망감이 [B]에서 손상된 체면에 대한 탄탄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 글쓴이는 대어를 낚지 못한 것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을 뿐, 경이감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또한 [B]에서도 현재 상황에 대한 글쓴이의 탄탄만 나타날 뿐, 인생에 대한 낙관적 기대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A]에서 글쓴이는 남대를 올리며 바나나 개구리가 걸려 올라오는 것에 허무함과 실망감을 드러낸 뿐, 무력감을 내보이지 않는다. 또한 [B]에서 글쓴이는 자신의 낚시질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생각을 드러내고 있을 뿐, 과거의 삶을 동경하는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④ [A]에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모습이 글쓴이의 감정이 나타나 있을 뿐,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후의 느낌이나 감정(상실감)은 나타나 있지 않다. [B]에서 글쓴이가 낚시질을 통해 새로운 이상을 품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A]에서 글쓴이가 특정 대상이나 자신에게 혐오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으며, [B]에서 글쓴이가 자신의 재주가 서툰다고는 언급하지만, 이것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도 나타나 있지 않다.

**27.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보기>의 표현에 맞게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보기>에서 환경과 이면의 차이를 제시했으면 내 세계를 지양하고, 반대로 지향하는 이면의 공간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했다.

② (나)의 화자는 낚은 고기를 꿰어 들고 술을 마시기 위해 '주'를 찾아 간다. 이때 '낚은 다리'를 건너간 화자가 '갈 길 물라'한 것은 '은 골'과 '주' 사이에서의 고민 때문이 아니라, 은 골짜기에 살구꽃이 쌓여 분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낸 표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주'와 '은 골'이 대비되는 속성을 지녔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신선 골짜'는 화자의 '백 년 근심'을 사라지게 하는 공간이므로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으로 적절하다. 이때 그 근심이 쌓였던 공간은 작품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면에 존재되어 '신선 골짜'와 대비된다. ③ (나)의 화자가 기준에 있던 공간은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이 있는 공간으로, 이는 <보기>의 '공간 내 특정 대상의 속성'으로써 그 대상이 포함된 공간 전체를 묘상한 것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기준의 공간에 대한 '어지럽고 시끄러운' 인식을 드러냄으로써 지금의 공간에서 '이대로록 시원하랴'와 같은 반응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낸 것이다. ⑤ (다)의 '내 서재'는 뉘승순한 '세상', 실사물런는 소식배에

들리지 않는 '거리'와 차단된 '고요'한 공간이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글쓴이는 '속에서 울화가 터져 나온다. 이는 '내 서체'도 글쓴이가 지향하는 공간이 될 수 없음을 드러난 것으로, '새로운 공간'에 대한 지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28~31] 문학(고전산문),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연계지문 : 수능특강139쪽)**

**28.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① 송이는 부모의 소식과 장필성의 소식을 듣지 못해 안타까워하지만 감사가 보는 데서 그 기색을 드러내지 못해 혼자 탄식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송이가 부모의 소식으로 애태위 감사의 격정을 산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제시된 내용에서 송이가 부모의 소식을 알고자 애태우는 것을 감사는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틀린 사람들은 지문-선지 간 크로스체크가 안 되어 있을 것이다. 명심하자. 고전소설은 크로스체크를 하지 않으면 틀린다. 현대소설은 틀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오답 풀이]** ② 송이는 병당에서 감사가 시키는 일을 하다가 공사 문첩 한 장에서 필성의 필적을 본 후 감사에게 이방이 바뀌었음을 묻는다. 이때 감사가 장필성이란 사람이 이방으로 새로 들어움을 알려준다. 필성이 이방 되었음을 감사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다. ③ 필성이 이방이 된 후 감사가 필성을 칭찬하며 '여옥기인(玉玉其人)'이라고 한다. 이는 얼굴생김새나 성품이 흠잡지 않고 깨끗하고 양전한 사람으로 필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심봉공(一心奉公)하여 민원(民怨)이 없도록' 처리하라는 감사의 말을 통해 필성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의 일처리에 대해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송이는 달을 바라보다 잠이 들고 꿈속에서 장필성을 만나 올게 된다. 꿈속에서의 울음이 잠꼬대가 되어 소리 내어 우는 울음이 된다. ⑤ 필성은 매일 문첩을 가지고 드나들지만 송이가 있는 병당에 접근하지 못하여 송이의 소식을 알 수 없다. 송이와 필성 모두 다른 사람에게 서로의 근황을 묻지 못하여 서로 글씨만 보고 창연히 지낸다는 내용을 볼 때 필성이 송이에 대한 마음을 감사에게 숨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9. [출제의도] 주요 소재의 의미를 파악한다.**

③ ㉠'공사 문첩'은 장필성이 이방으로 들어오면서 작성한 것이다. 송이는 감사의 지시로 공문을 보거나 판결문을 쓰다가 공사 문첩의 글씨가 장필성의 글씨인 것 같아 감사에게 이방에 대해 묻고 이방이 장필성으로 바뀌었음을 알게 된다. 이를 통해 송이는 장필성이 감사의 이방으로 자신과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게 된다. ㉡'두루마리'에는 송이의 '추풍감별곡'이 담겨 있다. 송이가 필성이 가까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대감이 알게 될까 필성과 만날 때를 기다리다 반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달을 보며 그리운 마음을 풀어낸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송이가 ㉡의 글씨를 보며 감사와 이방이 바뀐 것에 대해 대화하지만 이를 통해 감사가 송이의 그리움을 눈치채지는 못한다. 감사는 ㉡를 읽으며 송이의 그리워하는 마음을 짐작할 수는 있으나 그 대상이 필성임을 알게 되는 것은 제시된 내용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② ㉡를 보며 필성의 글씨를 생각한 송이는 작성한 사람에 대한 궁금증을 감사를 통해 확인한다. ㉢는 송이의 그리움을 혼자 표현한 것으로 필성에게 알리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는 감사로부터 송이가 전달받아 필성의 글씨를 확인하는 것이다. 감사로부터 필성이 전달받아 송이의 마음을 알게 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는 송이가 자신의 그리움을 표현한 것으로 필성이 그리움을 드러낸 것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⑤ ㉣를 보며 송이는 필성의 글씨를 확인한 후 그가 가까운 곳에 있음을 확인한 것일 뿐 필성이 자신을 찾고자 하는 것을 ㉡를 통해 확인한다는 것은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는 그리움을 표현한 것으로 재회하고자 하는 의지를 ㉡에서 찾긴 어렵다.

**30. [출제의도] 주요 소재의 의미를 파악한다.**

① '달'은 송이가 필성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대상으로 필성의 안면을 기원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내용이 이해되었다고 선볼리 사랑하는 임 격정하겠거니와라고 생각하지 말라. 크로스체크는 기본이다.

**[오답 풀이]** ② 외기러기가 짝을 찾아가는 소리, 두견의 슬피 우는소리, 또 쓸쓸한 낙엽성이 심회를 돕는다는 내용을 통해 달빛 아래 다양한 소리들이 송이의 외로움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달아 너는 내 심사를 알리

라'라는 송이의 탄식을 통해 달을 인격화시켜 말을 건네며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그 옛날 심양강 거문고 뜬던 여인은 만고문장 백나천을 달 아래 만 날 적에 멧힌 말을 풀었건만'이라는 대목에서 자신의 처지와 대조되는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은 그러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신세를 한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작년 이때 뒷동산 명월 아래 우리 님을 만났더니~님은 어찌 못 보는데'에서 필성과 추억을 떠올리며 만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을 탄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구절의 의미를 파악한다.**

③ ㉠'요사이'를 통해 최근 변화를 송이가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 주지만 이를 통해 송이가 궁정의 일을 돕게 되었던 과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를 통해 궁정에 이방이 바뀌었고 장필성이 이방으로 들어왔음을 알게 된다. **[오답 풀이]** ① ㉠'이때 마칠'은 필성이 송이가 있는 곳을 알고 관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중에 감사가 이방을 구하고 있는 시기와 맞물렸음을 드러내는 표지로 필성이 관아로 들어가게 되는 개연성을 부여해주고 있다. ② ㉡'하루'는 일상적인 날들을 보인던 송이가 필성의 글씨를 확인하며 앞으로 필성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서사적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을 드러내며 서사적 정보가 드러난 시점을 제시하고 있다. ④ ㉢'이미 반년'은 송이와 필성이 서로 글씨만 보고 창연히 지낸 시간으로 그들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리움만 쌓인 시간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이때'는 감사가 나이 들어 잠이 없어지고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던 시간으로 꿈에서 필성을 만나 올던 송이를 발견하는 시간적 배경을 의미한다.

**[32~24] 문학(현대시), 김기림, '연륜'(비연계)/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연계지문 : 수능특강 107쪽)**

<현대시는 있는 그대로 읽는다. 담백하게. 그리고 문장 단위로 여러 행을 합쳐 하나의 문장으로 읽는다. 이때, 서술어 중심으로 보되, 억지로 보려고 하지는 않는다. 중요도 순서는 서술어>관형어>부사어이다. <보기>를 먼저 읽고 결핍과 새로운 가치를 대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선지 판단은 사실적 판단 중심으로 해야만 한다.>

**32.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④ (가)의 화자는 '부너지는 꽃 이파리'라는 허약적 이미지를 통해 활력을 잃고 굳어 버린 연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나)의 화자는 '나라으로 떨어져 내리는 풍덩이'라는 허약적 이미지를 통해 쓸모없고 무가치한 부정적 대상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물건을 자기 손으로 만드는 과정을 제시하며 물건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가)에서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와 (나) 모두 화자의 움직임에 자연물에 빗대어 드러내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는 '비취빛 하늘'이라는 색채어를 활용하여 '섬'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반면 (나)에서는 색채어를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무쇠 낫이라는 대상이 시퍼렇게 빛난다. ⑤ (가)는 '서른 나문 해야', '섬으로 가자' 등의 대상에게 말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나)에서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 드러나지 않는다.

**33.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를 파악한다.**

⑤ (가)의 '또한'은 그동안의 활력 없는 삶을 단절하고 '불꽃처럼 열렬히'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불꽃'이라는 긍정적 존재를 담고 싶다는 바람이 드러난다. (나)의 '마구'는 대량생산되고 대량으로 소비되는 '플라스틱'의 쓰임을 부각하는 것으로 화자가 무가치하게 여기는 대상을 드러낸다. 화자는 자신에게서 이러한 속성을 발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고 이를 성찰하고 있으므로 대상과 화자 간의 차별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열렬히'는 불꽃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동안의 초라한 연륜을 끊어버리고 불꽃처럼 열정적으로 살아가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② (나)의 '한꺼번에'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풍조를 드러내며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지는 물개성적 삶을 드러내는 반면 '하나씩'은 정성스럽게 가치 있는 존재를 만들고 있는 것

을 보여주며 개별적 존재의 고유성을 드러내고 있다. ③ '운동'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의미하며 화자의 삶을 전반적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의 '날로'는 '구름같이 퍼려던 뜻'이 뜻대로 되지 않고 '굳어가고'있음을 드러내며 부정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나)의 '당장은' '플라스틱'처럼 부정적으로 느껴질 때 '뛰어내려서 벗어나고자 하는 절박함을 드러내고 있다.

**34. [출제의도] 주어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할 수 있다. <34번을 틀린 사람은 전부 다 맞는 애기인데 왜 답이 없지라는 고민을 했을 것이다. 선지 민감성은 주술 관계, 관형어, 부사어, 보조사, 주석, 의도, 인과, 과정 등이라고 하였다. '날로 굳어가는 연륜을 끊어버리고 / (나는) 불꽃처럼 살겠다.'라고 본질적으로 읽었으면 이 문제를 틀렸을 리가 없고, ㉡번 선지까지 가서 애라 모르겠다 ㉢번 이리저도 알았을 것이다.**

② (가)의 '불꽃'은 화자가 이전의 삶과 달리 열정적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보여준다. '주술 잡히는 연륜'은 그런 열정이 결핍된 이전의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꽃'은 이런 삶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다. 결핍된 속성인 '열정'을 끊는 수단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서른 나문 해는' 화자의 그동안 삶을 나타내며 굳어가는 '연륜'이라고 표현한다. 화자는 이를 '초라한 경력'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인생을 변하지 않은 부정적 경험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③ (나)의 '틸보네 대장간'은 정성스럽게 가치 있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공간으로 소모적이고 물개성적인 현대의 도시적 삶에서 결핍된 주체성과 개성을 찾고자 하는 화자의 열망을 투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화자는 '풍덩이'처럼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가치 있는 존재가 대장간에 걸려있던 것처럼 '어딘가에 걸려 있고 싶다'며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보여주고 있다. ⑤ (가)의 화자는 '초라한 경력'을 '욕지'에 막아 두고 '연륜'을 끊고 '불꽃'처럼 살겠다고 다짐한다. (나)의 화자는 '플라스틱'처럼 부정적 대상으로 느껴질 때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라고 하며 '버스'에서 '플라스틱'처럼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의 '욕지'와 (나)의 '버스'는 모두 화자가 결핍을 느끼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국어 영역 • 유대종연구소

화법과 작문

35	②	36	①	37	⑤	38	⑤	39	④
40	④	41	③	42	③	43	①	44	⑤
45	②								

해설

[35~37] 강연

<강연은 항상 청중과의 상호 작용, 매체 자료 활용, 청중의 반응(피드백)이 나오기 쉽다.>

<나아가, 화법은 논제, 논제의 방향(논제 하위 범주), 세부 정보로 나뉘는데, 논제와 논제의 방향까지 잡고 세부는 초벌로 읽고, 선지와 크로스체크해서 문제를 풀도록 해야 시간 단축에 효과적임을 명심해.>

35. 강연자의 말하기 전략을 파악한다.

<논제 : 가로수 고사

논제의 방향 : 가로수 고사의 원인과 대책

세부 정보 : 도시의 열악성 / 토양 보습제 투입>

② 강연 내용인 '어름칠 가로수 고사의 원인과 대책'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 도입부에서 '가로수 지킴이 활동'을 하는 청중들의 경험을 환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어려분이 살아갈 도시를 더욱 건강하게 가꾸는 일'이라는 표현에서 활용법이 쓰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것이 직접적인 강연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직접적인 강연 대상인 '가로수'를 다른 소재에 빗대어 설명한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 ③ 통계 자료를 인용한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진', '그림'은 그 자체만으로는 통계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④ 강연자가 제시한 사진은 모두 2년 전 사진이며, '최근의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과거 사례'와 '최근 사례'를 대조한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 ⑤ 강연의 도입부에 강연을 하게 된 소감을 찾아보기 어렵다.

36. 강연자의 말하기 계획을 추론한다.

① 전자 우편을 통해 청중이 여름 방학 봉사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알 수 있으나, 실제 강연에 '가로수 지킴이 활동'을 위한 준비 사항이 안내되지 않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② 전자 우편의 '도시의 가로수가 여름에 왜 말라 죽는지'를 통해 청중이 도시 가로수 고사의 원인을 알고자 함을 파악할 수 있고, 강연자는 이를 반영하여 도시의 토양 환경을 시각 자료인 '그림'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③ 전자 우편의 '이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통해 청중이 가로수 고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알고자 함을 파악할 수 있고, 강연자는 이를 반영하여 '살수차', '물주머니', '도양 보습제' 등 다양한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④ 전자 우편의 '지회의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통해 청중이 봉사 활동의 의미를 알고자 함을 파악할 수 있고, 강연자는 이를 반영하여 '어려분 덕분에 △△시의 가로수가 올 여름에는 말라 죽지 않을 것입니다.'와 같이 봉사 활동이 가로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드러내고 있다. ⑤ 전자 우편을 통해 청중이 '저희 지역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였음을 알 수 있고, 강연자는 이를 반영하여 '어려분이 사는 △△시의 2년 전 사진'을 보여 주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청중에게 질문을 건네고('몇 월의 모습일까요?' 등의 질문), 청중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질의응답을 수행하였다.

37. 청중의 피드백을 확인한다.

⑤ ㉔의 경우 강연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에 대한 궁금증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는 '강연 내용의 논리적 모순'과는 관련이 없고, 강연 내용의 논리적 구성은 인정하되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을 적은 메모라고 추측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㉔의 화살표(→)는 인과 관계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학생이 세부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며 들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논제, 논제의 방향, 세부정보도 나

누어서 읽는 방식을 채택했다면 매끄럽게 선지 처리가 가능했을 것이다.) ㉔ ㉕의 메모는 강연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며, 이를 통해 해당 메모는 강연 내용을 듣고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을 적은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㉔ ㉕의 메모는 '우리 동네'와 같이 화자 본인의 경험이 반영된 결과며, 이를 통해 해당 메모는 학생이 자신의 경험과 강연 내용을 관련짓는 결과임을 추측할 수 있다. ㉔ ㉕의 메모는 봉사자들이 할 일을 대략 1~5 중 선택적으로 묶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학생이 봉사자들이 할 일을 선택적으로 주의 깊게 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학생이 제시된 정보를 구분하며 들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평가원은 기준에 따른 차이를 말하고 싶은 것이다.)

[38~42] 화작용합형

<눈에 띄는 것은 화법1, 작문2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문제가 5문제라는 것이다.>

<화법의 논제는 의류 수거함이었다. 그리고, 의류 수거함의 원인을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논제의 방향이라고 판단하면 좋다. 나머지 세부 정보는 가별게 읽으면서 크로스체크로 접근한다.>

38. 대화의 흐름을 파악한다.

⑤ ㉔의 경우 상대와 자신의 접근 방식이 다름을 인정하고 있을 뿐, 절충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평가원에서 실제로 절충안이 아님에도 절충안이라고 선지에서 사기치는 경우가 꽤 많았다.)

[오답 풀이]

① ㉔은 상대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에 대한 답변이며, 신문 기사의 내용을 근거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② ㉔은 상대가 언급한 신문 기사의 내용 중 '시청'의 '적극 노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추가로 묻는 말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곧 상대에게 신문 기사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것에 해당한다. ③ ㉔의 경우 상대의 의견을 재진술하는 것이며, 이는 사안의 원인에 대한 상대의 의견을 자신이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발화에 해당한다. ④ ㉔의 경우 '그 말도 맞지만'과 같이 상대의 견해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와 다른 자신의 의견인 '이용자의 맛이 더 좋지 않을까?' 역시 드러내고 있다.

39.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말하기를 파악한다.

<화법에서 협력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등이 있다. 협력의 원리에는 양의 격률, 질의 격률, 관련성의 격률, 태도의 격률 등이 있고, 공손성의 원리에는 요령, 관용, 칭찬, 겸양, 일치의 격률이 있다. 이중 상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질문을 요령의 격률을 어겼다고 얘기할 수 있고, 학생1은 그러므로 좀 더 부드럽게 요청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화법은 개념과 이론을 바탕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됨을 명심하자.>

④ [A]에서 '학생 1'은 원하는 바인 '찾은 자료'를 '학생 2'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학생 2'는 이와 같은 말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 이에 '학생 1'은 사과를 하고,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완곡하게 같은 요청을 '학생 2'에게 다시 건넨다. 그리고 '학생 2'는 요청을 수용한다.

[오답 풀이]

① [A]에서 상대방인 '학생 2'는 부정적 반응을 먼저 보였으며, '학생 1'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덧붙이고 싶지도 않다. ② [A]에서 '학생 1'이 상대방과의 의견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인 '학생 2'는 부정적 반응을 먼저 보였었다. ③ [A]에서 '학생 1'이 원하는 바를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학생 2'가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이지, '학생 1'이 의사를 명료하게 드러내지 않은 것은 아니다. ⑤ [A]에서 '학생 1'이 원하는 바를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학생 2'가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이지, '학생 1'이 특정 요구를 일부만 수용한 것 때문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 것이 아니다. [A]에서 요구를 하는 쪽은 '학생 1'이며, '학생 2'가 '학생 1'에게 특정한 요구를 하는 부분은 [A]에서 찾아볼 수 없다.

40. 글에 담긴 필자의 의도를 파악한다.

④ (나)의 2문단은 현상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당 선지는 틀렸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학생 2'는 '우리 학교 친구들을 언급하고 있

으며, 이 내용은 (나)의 1문단에 '저희 학교의 많은 학생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으로 제시된다. ② (가)에서 '학생 2'는 '의류 수거함 주변이 쓰레기장이 되고' 있다며 의류 수거함의 상태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나)의 2문단에 (의류 수거함 주변이) '쓰레기장이 되고 있습니다.'와 같이 제시되어 문제를 제기한다. ③ (가)에서 '학생 1'은 ○○시의 사례를 신문 기사를 통해 언급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나)의 3문단에 신문 기사의 하이퍼링크와 함께 제시되어 권의를 뒷받침한다. ⑤ (가)에서 '학생 1'은 의류를 올바르게 배출하면 '선별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언급하고 있고, 이는 (다)의 2문단에 '올바르게 배출하면 선별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제시된다.

**41. 작문 맥락을 파악한다.**

③ (다)의 작문은 (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가)에서 '학생 2'는 '우리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글을 써 '학교 신문'에 글을 썼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에 '우리 학생들의'와 같이 예상 독자를 언급하는 부분에서, (다)가 지역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독자로 상정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의 글은 시정의 조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이며, 건의문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며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글에 해당한다. (나) 역시 구체적인 방안인 '의류 수거함 수리 및 교체', '의류 수거함의 올바른 이용에 대한 캠페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공동체의 문제인 '의류 수거함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해당한다. ② (나)의 글은 시청 누리집 게시판에 올린 글이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하이퍼링크를 활용하여 글의 특정 정보인 '신문 기사'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게 하였다. ④ (다)의 경우 의류 수거함과 관련된 문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때 문제 상황은 공동의 실천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 ⑤ (나)의 경우 '도시의 미관 개선', '의류 수거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같은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였고, (다)의 경우 2문단에서 의류 수거함을 올바르게 이용하면 얻는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이는 (나)의 건의 대상자인 시청, (다)의 설득 대상자인 학교 학생들을 설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42. 집금 기준에 따라 글을 고쳐 쓴다.**

③ ⑥의 경우 앞 문장에 대한 적합한 예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㉔를 적용해 뒤의 문장이 앞의 문장에 대한 적합한 예시가 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지에서 제시한 수정 방안은 '수거함에 넣을 수 있는 물건과(의류, 가방, 담요) 그렇지 않은 물건(숨이불, 배게, 신발)'에 대한 예시를 적절히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의 경우 '의류 수거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아니며, 앞 문장을 뒷받침하는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㉔를 적용한다면 앞뒤 문장 간에 내용이 긴밀하게 이어지도록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선지에서 제시한 수정 방안을 적용하더라도 앞뒤 문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는다. 앞 문장은 '의류 수거함을 올바르게 이용했을 때의 장점'을 논하고 있지만, 선지에서 제시한 방안은 다른 사안에 대한 이유를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 ② ⑥의 경우 앞 문장에 대한 적합한 예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㉔를 적용한다면 앞뒤 문장이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선지에서 제시한 수정 방안은 의류 수거함에 넣을 수 있는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에 대한 분류와도 거리가 멀고, '그러나'와 같은 내용 연결 표현 역시 수정 방안으로 적합하지 않다. ④ ②의 경우 '의류 수거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아니며, 앞 문장을 뒷받침하는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㉔를 적용한다면 ㉔가 앞 문장을 뒷받침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선지에서 제시한 수정 방안을 적용하더라도 ㉔가 앞 문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의류 수거함을 통한 의류 재사용 비용 증가와, 의류 수거함에 쓰레기를 넣는지의 여부는 긴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⑤ ⑥의 경우 앞 문장에 대한 적합한 예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㉔를 적용한다면 '수거함에 넣을 수 있는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을 구분

해서 넣어야 한다.'에 대한 뒷받침 문장으로 ⑥를 교체해야 한다. 그러나 선지에서 제시한 수정 방안을 적용하더라도 ⑥가 앞 문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의류 수거함에 넣는 물건의 구분과, 이용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주장-근거의 관계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42번 문제는 앞 뒤 문장을 흐름에 따라 연결해서 읽으라는 평가원의 메시지이다. 독자에서도 적용되니 이 문제를 통해 잘 이해해보길 바랍니다.>

**43. 작문 계획을 파악한다.**

<이런 글쓰기 계획 문제는, 선지에 등장하는 개념어들을 바탕으로, '개념-예측-대응' 순서로 접근하도록 해, 각 선지의 개념(용어 정의, 배경, 차이, 예시, 효과 등)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고, 그리고 지문의 내용과 선지를 서로 대응하는 것이지.>

① 제시된 글의 도입 부분에 '손 글씨 쓰기의 개념'을 정의한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② 1문단에 '컴퓨터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쓰기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와 같이, 컴퓨터 자원을 이용한 쓰기가 일상화된 배경이 언급되고 있다. ③ 2문단에 '강'과 '물'과 같은 글자를 예로 들어 컴퓨터 자원으로 입력할 때와 손으로 글씨를 쓸 때의 손동작을 대조하며 설명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손 글씨 쓰기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선별과 구조화'라는 '고등 사고 과정'을 수행해, 결과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효과를 거둔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⑤ 4문단에서 최근에 주목받는 손 글씨 쓰기의 정서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44. 조건에 따라 작문을 수행한다.**

<논제가 '손 글씨 쓰기'이고, 해당 논제인 '손 글씨 쓰기의 하위 범주는 결국 너의 다양한 영역 발달, 해당 내용의 이해도 상승, 그리고 정서적인 효과이지. 세부 정보는 크로스 체크하는 것이요.>

<조건 충족은 항상 all 충족임을 기억하자. 표현상의 특징이 하나 정도 나오거나 꼭 확인하고, 전체 주제와 맞아 떨어지야 하는 문제도 나왔었음을 기억해.>

⑤ 이 글에 제시된 손 글씨 쓰기의 주요 효과는 2문단에서 '너의 다양한 영역 활성화', 3문단에서 '내용에 대한 이해도 향상', 4문단에서 '성취감, 마음의 치유와 같은 정서적 효과'이며, 이 내용이 모두 언급되어 있다. 또한 이 효과들을 '세 가지 빛깔의 진주'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 제시된 손 글씨 쓰기의 주요 효과가 모두 언급되지는 않았다. 비유적 표현 역시 사용되지 않았다. ② '과정'과 '한계'는 손 글씨 쓰기의 주요 효과가 아니며, 글에 제시된 손 글씨 쓰기의 주요 효과가 모두 언급되지도 않았다. '동전의 양면과 같음'은 비유적 표현에 해당한다. ③ '너, 이해, 정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손 글씨 쓰기의 주요 효과를 모두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④ '내용에 대한 이해도 향상'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요 효과가 모두 언급된 것이 아니다. '(그 가치)는 별처럼 빛날 것이다.'는 비유적 표현에 해당한다.

**45. 주어진 자료를 작문에 활용한다.**

② ㄴ의 과제 1은 내용의 기억 여부를 묻는 것으로, 손 글씨 쓰기와 컴퓨터 자원을 이용한 쓰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결과는 손 글씨 쓰기의 효과를 드러내는 데 기여하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ㄱ의 경우 손 글씨 쓰기가 정확히 너의 어떤 영역을 활성화하는지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2문단에서 제시된 '너의 다양한 영역'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③ ㄴ의 과제 2는 내용의 이해 여부를 묻는 것으로, 손 글씨 쓰기가 내용 이해에 더 도움이 됨을 드러낸다. 따라서 이 결과는 3문단에서 제시된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의 구체적 실험 결과로 사용될 수 있다. ④ ㄷ-1의 경우 컴퓨터 자원을 이용한 쓰기가 선호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결과는 1문단에서 컴퓨터 자원을 이용한 쓰기가 학생들에게 선호된다는 내용을 보강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

⑤ ㄷ-2의 경우 '손 글씨 쓰기'를 선호하는 이유에 과제에 대한 예측, 과제에 대한 정성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보여준다. 이는 손 글씨 쓰기의 정서적 효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손 글씨 쓰기가 과제를 수행할 때에도 정서적 효과를 거둬줄 수 있다.(예측, 정성은 정서적 포인트이다. 즉 그렇게 허용할 수 있으려면, ②번 선지의 'ㄴ'에서 손 글씨 쓰기가 특정 상황에서 '효과적이지 않음' 즉 대척점을 잘 파악했어야 했다.)

• 국어 영역 • 유대중연구소

언어와 매체

35	㉔	36	㉒	37	㉑	38	㉓	39	㉕
40	㉑	41	㉒	42	㉑	43	㉒	44	㉑
45	㉕								

해설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정도는 알고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제 총론 5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지문형 문법이 문법 교유의 영역으로 출제되면서, 아는 것이 문제 풀이 속도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35.

㉔ ㉑과 ㉕을 모두 만족하는 용언의 짝은 ㉕의 '깨문다 - 엇듣다'입니다. '깨문다'는 '깨문다, 깨물어, 깨물으니, 깨문는'처럼 활용하고, '엇듣다'는 '엇듣는, 엇들으니, 엇듣는'과 같이 활용합니다. 이 둘은 활용할 때 어간의 모습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 용언('ㄷ' 불규칙)입니다.

【오답 풀이】

㉑ '구르다'는 '구르다, 굴러, 구르니'와 같이 활용하고, '잠그다'는 '잠그다, 잠가, 잠그니'와 같이 활용하는 용언이므로 ㉕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구르다'는 활용할 때 어간의 모습이 바뀌는 어간 불규칙 활용 용언('ㄷ' 불규칙)이고, '잠그다'는 활용할 때 어간의 모습이 변하나 모음 어미 앞에서 '-ㄱ'이 규칙적으로 탈락하기 때문에 규칙 활용 용언으로 분류됩니다.('구르어' 아니다. 잘 기억해.) ㉒ '호르다'는 '호르다, 흘려, 호르니'와 같이 활용하고, '푸르다'는 '푸르다, 푸르러, 푸르니'와 같이 활용하므로 ㉕을 만족하지 못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호르다'는 활용할 때 어간의 모습이 바뀌는 어간 불규칙 활용 용언('ㄷ' 불규칙)이고, '푸르다'는 활용할 때 어미의 모습이 바뀌는 어미 불규칙 활용 용언('ㄷ' 불규칙)이므로 ㉕은 모두 만족합니다.(-아/-어 등을 접어 넣고 판단하는 것 잊지 말자. 같은 '르'가 보인다고 하여 무조건 'ㄷ' 불규칙인 것은 아니지.) ㉓ '뒤집다'는 '뒤집다, 뒤집어, 뒤집으니, 뒤집는'과 같이 활용하고, '껴입다'는 '껴입다, 끼입어, 끼입으니, 끼입는'과 같이 활용하므로 ㉕은 만족합니다. 그러나 모두 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므로 ㉕을 만족하지 못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㉒ '불잡다'는 '불잡다, 불잡아, 불잡으니, 불잡는'과 같이 활용하고, '정답다'는 '정답다, 정다워, 정다우니'로 활용하는 용언이므로 ㉕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불잡다'는 규칙 활용 용언이고, '정답다'는 활용할 때 어간의 모습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 용언('ㅂ' 불규칙)입니다.

36.

㉒ '쌓으니'는 발음할 때 종성의 'ㅎ'이 탈락한 [싸으니]로 발음되지만 표기는 '쌓으니'로 합니다. 즉, 탈락이 나타나지만,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예입니다.

【오답 풀이】

㉑ '서'는 '서다'의 어간 '서-'가 어미 '-어'와 결합할 때 동일 모음의 탈락이 일어나 '서'로 실현된 결과가 활용형의 표기에 반영된 예입니다. ㉒ '끼'는 '끼다'의 어간 '끼-'가 어미 '-어'와 결합할 때 모음 '-어'가 탈락한 결과가 활용형의 표기에 반영된 예입니다. ㉓ '푸니'는 '풀다'의 어간 '풀-'에 어미 '-니'가 결합할 때 어간의 'ㄷ'이 탈락한 결과가 활용형의 표기에 반영된 예입니다. ㉔ '민는'은 '민다'의 어간 '민-'에 어미 '-는'이 결합할 때 어간의 'ㄷ'이 '-니'으로 교체되어 [민는]으로 발음되지만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은 예입니다. (지문을 봐. 마지막 문단에 음운 변동이라 나와 있습니다. 즉, 음운 변동을 꼭 실시해 주어야 합니다.)

37.

<안긴 문장에서 안은 문장에서 어떠한 문장 성분인지, 안긴 문장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는지 구분을 해야 했다. 기본적인 안긴문장, 즉 안긴결절의 표지들은 의무

도록 하자. 언제 총론 7장을 참조하도록 하자. 안은문장에서 체언을 수식하고 있는 것이 관형어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체비는 겨울이 오기 전에 떠났다.'라는 예문에서, '겨울이 오기'는 명사절이면서 관형어라고 지속적으로 예기한 적이 있을 것이다. ㉒ 쓴 사람들은 반성하자.>

㉒ [자료]에서 ㉒의 '노래를 부르기'는 명사절이 주어로 쓰이고 있고(명사절은 어떠한 조사를 만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다. ㉑의 '아무도 모르게'는 부사절이 부사이므로 쓰이고 있습니다.(부사절은 부사이, 관형절은 관형어, 서술절은 서술어!, 단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또한 ㉒의 '동생이 오기'는 명사절이 관형어로 쓰이고 있으며, ㉒의 '마음씨가 착하다'는 서술절이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이고 있습니다.('A는 B가 어떠한가'에서 B가 보이기 아니면, 'B가 어떠한가'는 서술절이라 말한 바가 있다.) 이 ㉒-㉒를 그림에 적용해 보면 첫 번째 '안긴문장이 안은문장의 서술어로 쓰이고 있는가?'에서 '예'인 ㉑에는 ㉒가 들어가고, 두 번째 '안긴문장이 안은문장에서 체언을 수식하고 있는가?'에서 '예'인 ㉑에는 ㉒가 들어가고, ㉑에는 ㉒, ㉒가 들어갑니다.

38.

㉑ ㉑에서 후배2가 말한 '저희'는 선배인 청자를 고려하여 후배 자신들을 낮추어 표현한 것으로, 청자인 '선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자가 청자와 자신을 모두 낮추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습니다.(청자 포함 미포함 이 중요하다고 언제 총론 체언 파트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였다.)

【오답 풀이】

㉑ ㉑은 '열린'이라는 용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부사이므로, '회의가 학교에서 열렸다.'를 봐봐. 별도의 주어가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부사어입니다. 즉, '에서'가 부사격 조사인지 주격조사인지 물어보는 문제는 단골 문제입니다. ㉒ ㉒은 주어로 쓰인 것이므로 둘의 문장 성분이 서로 다릅니다. ㉒ ㉒의 '우리는' 화자(선배)와 청자(후배1, 2)가 포함되어 있는 동아리를 의미하므로 화자인 선배와 후배들을 포함한다는 것은 적절합니다. 청자 포함 개념. ㉓ '자신의 형편을 고려해 달라는 동아리가 한들이 아니라'의 '자신'은 뒤에 오는 '동아리'를 가리키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문맥을 통해 내용을 이해하자. 표피만 보면 틀리게 장치해 놓았다. 3번 쓴 사람들은 지문 내용을 안 읽은 것이다. 대명사, 지칭어 등은 지문 내용을 꼭 읽어야 한다. 즉, 여러분은 '동아리가 자신의 형편을 감안해 달라고 한다.'라는 안긴문장을 살려 내어야 한다.) ㉔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에서 서로'는 '학교'와 회의에 참여한 '우리' 양측을 의미하므로 적절합니다.

39.

㉑ ㉑은 어휘가 지니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뜻하며, ㉒은 그 핵심적 의미에서 파생된 부가적인 의미를 뜻합니다. 그리고 ㉒은 동음이의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유류의 얼굴 중앙에 튀어나온 부분'은 ㉑에 해당하고, '쿿쿿에서 흘러나오는 액체'는 ㉑에 해당하며, '그물이나 뜨개질한 물건의 눈마타의 매듭'을 뜻하는 '코'는 ㉑에 해당합니다. '어머니께서 목도리를 한 코씩 떠 나가셨다.'의 '코'는 ㉑에 해당하는 것이 맞으므로 적절한 사용 예로 볼 수 있습니다.(중심적, 주변적 의미는 빈출이다. 옛 수능 기술 문법 문제들(2016~2018)을 풀어보도록 하자.)

【오답 풀이】

㉑ '물은 코가 옷에 묻어 휴지로 닦았다.'의 '코'는 ㉑에 해당하는 의미를 지니므로 ㉑의 예로 볼 수 없습니다. ㉒ '어부가 쳐 놓은 어망의 코가 끊어졌다.'에서 '코'는 ㉑에 해당하므로 ㉑의 예로 볼 수 없습니다. ㉓ '코끼리는 긴 코를 자유자재로 사용한다.'에서 '코'는 ㉑의 의미를 지니므로 ㉑의 예로 볼 수 없습니다. ㉔ '동생이 갑자기 코를 다쳐서 병원에 갔다.'에서 '코'는 ㉑의 의미를 지니므로 ㉑의 예로 볼 수 없습니다.

[40~42] 매체, 인터넷 신문

40. 인터넷 신문 매체의 특성을 파악한다.

㉑ 위 인터넷 신문 기사와 관련된 다른 기사들의 제목이 '관련 기사'라는 항목을 통해 등장하고 있다. 이 '관련 기사'

항목은 하이퍼링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아래를 눌러 바로 가기'라는 표현을 통해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인터넷 신문 기사의 수용자가 '관련 기사' 항목에 존재하는 다른 기사들을 읽고 새로운 정보를 추가적으로 얻고 싶다면 기사 제목을 눌러 다른 기사들을 열람하면 된다.

【오답 풀이】

㉑ 인터넷 기사를 SNS에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SNS에 공유'라는 버튼의 존재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능과 기사 내용의 직접적인 수정은 관련이 없다. 기사 내용의 수정이 가능한 점은 기사의 '최초 작성' 시간과 '수정' 시간을 통해 알 수 있다. ㉒ 기사에 대한 수용자들의 선호도는 '좋아요'와 '싫어요'의 수를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수용자의 기사 선호도일 뿐이지, 기사에 제시된 정보의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다. 기사에 제시된 정보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기사 속 정보의 출처, 정보의 왜곡 여부 등을 따지며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㉓ 이 인터넷 신문 기사는 글과 사진, 그림과 그래프 등의 복합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시각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것이지, 청각적인 정보 전달을 위함은 아니다.(복합 양식이라는 위당은 계속 나올 것이므로 용어를 기억하자. 문자, 사진, 영상 자료 등이 둘 이상 결합된 것을 복합 양식이라고 한다.) 따라서 수용자들은 시각적 정보들을 결합하여 기사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뿐이지, 청각적 정보를 기사에서 얻어내거나, 이를 시각적인 정보와 결합시킬 수는 없다. ㉔ 기사의 최초 작성 시간과 수정 시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는 기사의 작성 시간을 알려줄 뿐이지, 각 수용자의 기사 열람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은 하지 못한다.(수용자와 작성자의 주체를 구분하려는 문제이다.)

41. 매체 자료가 지닌 전달 효과를 파악한다.

㉒ 기사에서 관광객 수와 여행 지출액에 대한 시각 자료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증가하는 관광객 수에 비해 숙박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당일 여행에 비해 숙박 여행이 더 큰 지출액이 나타난다는 점을 연결지어 숙박 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숙박 시설의 증가가 관광 수입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함이기도 하다. ㉑번 선지를 쓴 사람은 아마 ㉒번이 그럴싸해서 넘어갔을 것이다. 관광객 수가 늘고 있고, 여행 1회 당 지출액이 숙박이 더 많다 하여, 체류형 관광 지출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즉, 자료 활용형 작문 문제들을 풀 것을 권한다. 특히 화자 총론 CH3. 작문 단특형을 풀어볼 것을 권한다.)

【오답 풀이】

㉑ 체류형 관광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내용 이후에 '관광객 및 숙박 시설 수 추이'라는 시각 자료를 배치하였다. 관광객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숙박 시설 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유휴 시설을 활용하여 숙박 시설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지역 사업의 배경을 드러내기 위해 부족한 것이다. 즉, 숙박 시설은 여전히 3개인데, 관광객 수가 늘어나는 것은 체류형 관광의 유인의 한계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㉒ 시각 자료에는 관광객 수의 증가 흐름에 따라 화살표 이미지가 나타난다. 이는 지역 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부각시키기 위한 시각적 표현이라 볼 수 있다. ㉓ 숙박 여행 지출액이 당일 여행 지출액에 비해 높다는 점을 시각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숙박 시설이 증가하여 체류형 관광이 증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한 시각 자료라 볼 수 있다. ㉔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업을 둘러싼 우려가 존재하긴 하다. 하지만 기사는 사업을 받고 있는 대다수 지역 주민들의 반응과 지역 경제 전문가의 사업의 긍정적 영향에 대한 언급을 선별하여 기사를 작성하였다.

42. 매체 자료 제작 계획의 반영 여부를 파악한다.

㉑ 영상 제작 계획에서 건물 내부와 외부에 조성되는 공간을 제시하고 있긴 하나, 관광객의 동선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저 내부와 외부를 단순히 항목화하여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오답 풀이】

㉑ 기사 제목을 짧게 변형하여 영상 제목으로 장면을 시작하고 있다. 또한 기사에서 다루는 초등학교의 모습을 함께

제시하여 기사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을 도입부 영상 제작 계획에서 제대로 드러내고 있다. ② 시설 조성 이전의 장면 속에는 행한 폐교의 모습을, 조성 이후 장면 속에는 조성된 시설과 더불어 사람이 북적이는 모습을 제시하여 시각적 대비를 이루고 있다. 또한, 시설 조성 이전 장면에는 무겁고 어두운 음악을 사용하여 청각적 대비를 이룰 것임을 계획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각 관광 자원의 위치와 거리를 표시하여 사업이 시행되는 폐교가 지닌 지역 관광 거점으로서의 지리적 위치를 드러내고 있으며, 관광 자원들과의 연계로 기대되는 효과를 장면 스케치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자막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기사의 댓글에 등장한 물놀이, 캠핑, 카페를 방문한 관광객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연속적으로 드러내려는 영상 제작 계획을 세우고 있다.

**[43~45] 매체, 텔레비전 방송 뉴스, 잡지 인쇄 광고**

**43. 서로 다른 매체 자료의 특성 차이를 파악한다.**

② (가)에 나타난 진행자와 박 기자의 언급을 통해 휴대용 선풍기의 판매량이 늘고 있는 시기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어떤 휴대용 선풍기를 선택하면 좋은지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시의성 있는 정보이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설문 조사 결과를 다루고 있긴 하나, 이는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실시한 설문이다. 이는 뉴스의 수용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뉴스의 정보는 설문 조사 결과와는 달리 휴대용 선풍기의 안전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가)에서 수용자들이 뉴스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나)에는 주된 소비자층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주된 소비자층을 명시하고 있다면, '수험생을 위한 휴대용 선풍기' 정도의 문구가 등장했을 것이다. ④ (가)에는 여러 사람이 아닌 한 사람만의 인터뷰를 통해 제품 구매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인터뷰 영상 자체는 인쇄 광고인 (나)에 비해 현장감이 있긴 하다.(즉, 여러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사실적 판단을 해야 한다. ④번 선지를 쓴 사람은 고전 소설 같이 정보의 일치 불일치 문제 등에서 틀리기 쉽다. 꼼꼼하게 선지 판단을 하도록 하자.) ⑤ (나)에는 제품의 디자인을 주로 소개하고 있다. (가)에 비하면 한정적인 정보만이 담겨있다.

**44. 매체 자료의 언어적 특성을 파악한다.**

① ㉠에서 '좋을까요?'라는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시청자들이 궁금해할만한 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진행자 자신이 궁금한 점을 드러내는 게 아니다. 시청자에게 궁금증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려는 것이므로 해당 선지는 틀렸다.

**[오답 풀이]**

② '휴대용 선풍기'라는 명사로 문장을 종결하며 휴대용 선풍기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술어로 문장을 종결했을 때보다 수용자들이 '휴대용 선풍기'라는 대상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설문 조사 결과로 나타난 제품 성능, 디자인, 가격 등의 요소들을 제시한 뒤 '그런데'라는 접속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들보다 '안전성'이 중요하다는 뉴스의 핵심 정보를 강조하여 전달하고 있다. ④ '확인할 수 있을까요?'라는 물음의 형식과 그에 해당하는 답변을 바로 제시하여 뉴스의 핵심 정보인 휴대용 선풍기의 선택에 있어서 '안전성'이 중요함을 전달하고 있다. ⑤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두고 '현명한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뉴스 시청자들이 안전성을 고려하여 휴대용 선풍기를 선택할 것을 기대 및 요청하고 있다.

**45. 매체 자료에 담긴 내용의 차이를 비교한다.**

⑤ (나)는 유명인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품의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료'는 '문구'를 활용하여 제품 성능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나)는 제품 성능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진 않다.(유명인의 이미지와 성능의 우수성은 상관성이 전혀 없다. 제품 광고는 무조건 성능의 우수성을 강조하겠지라는 생각은 버리도록 하자. (나)가 유명인의 이미지로 우수함을 강조하는지 따져 보자. 연결이 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나)에는 '디자인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다'라는 문구를 곡선으로 배치하여 바람의 움직임을 연상하게 한다. 더불어, 문구 옆에 바람 모양의 이미지를 배치하여 이러한 연상 작용을 강화하고 있다. 사람들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연예인의 이미지와 문구를 통해 제품이 휴대용 선풍기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② '자료'에는 '자사 기존 제품 대비 30% 강력해진 풍력'이라는 문구를 배치하였다. 이는 풍력과 같은 성능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구매 기준에 맞추기 위한 광고 문구라 볼 수 있다. ③ (나)에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문구가 없다. 반면, '자료'에는 '안전성을 보증하는 KC 인증'이라는 문구를 배치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에는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제품의 뛰어난 디자인을 제품의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자료'는 '내 손 안의 태풍'과 같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제품의 강력한 성능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